

아오시마 신사: 신성한 지승(紙繩)

끈이나 줄을 묶어 어떤 일의 매듭이나 결속의 상징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은 일본의 신화와 종교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듭은 일본의 독자적인 종교인 신도(神道)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사고방식으로서 하늘과 땅, 그리고 만물을 연결 짓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생명 그 자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매듭은 연애의 상징으로, 끈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가리킵니다. 일본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8 세기에 편찬된 와카집인 『만엽집(萬葉集)』에는 끈의 매듭을 사랑의 상징으로 노래하는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매듭에 생명과 사랑을 비유하는 사고방식은 현대 일본 문화의 언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적어도 에도 시대(1603-1867)부터 지승을 신성한 건조물이나 나무에 묶은 다음 이 같은 사고 방식에 따라 건강, 악귀로부터 수호, 연애운 등을 빌게 되었습니다. 아오시마 신사에서는 원하는 지승을 구매하여 나무나 줄에 묶어 소원을 빌 수 있습니다. 총 5 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란색은 건강, 초록색은 일과 학업, 노란색은 사업 번창, 빨간색은 연애, 순산, 자녀, 부부 화목, 흰색은 다른 색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원에 저마다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승은 1 개 100 엔이며 신사에 기부됩니다.